

[자전거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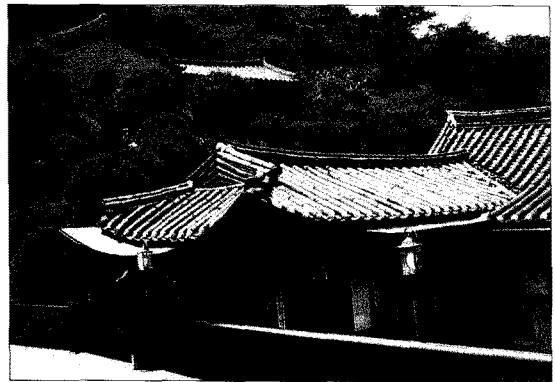
한강 지류 하천 '홍제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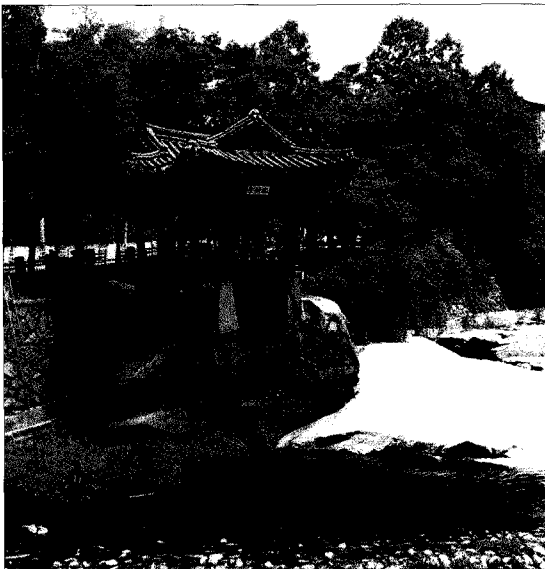
김대홍 | 오마이뉴스기자
(buguibugu@empal.com)

서울 수계 내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지류는 모두 14개다. 그 중 주변에 문화재가 특히 많은 하천은 홍제천이다. 하천변에 중국 사신이나 관리가 묵어가던 홍제원(洪濟院)이 있어 홍제원천(洪濟院川)이라 불렀고, 바닥에 모래가 많아 '모래내' 또는 '사천(沙川)'이라 불렀다.

홍제천은 북한산 문수봉 보현봉 형제봉에서 발원한다. 평창동 49번지가 시작이다. 자전거 여행은 홍제천 상류 세검정(洗劍亭)에서부터 시작이다. 세검정은 조선 광해군을 폐위한 중종 세력이 이곳에서 칼을 씻었다 해서 붙은 이름이다.



〈그림 2〉 석파랑 (출처 <http://blog.naver.com/choikyaj>)



〈그림 1〉 세검정 (출처 <http://blog.naver.com/choikyaj>)

지금 천 옆 큰 바위 위에 정자가 복원돼 있지만 옛 정취를 느끼기 힘들다. 바로 옆에 차도가 있어 시끄러운 편이며 정자 밑 디딤돌 또한 정자와 어울리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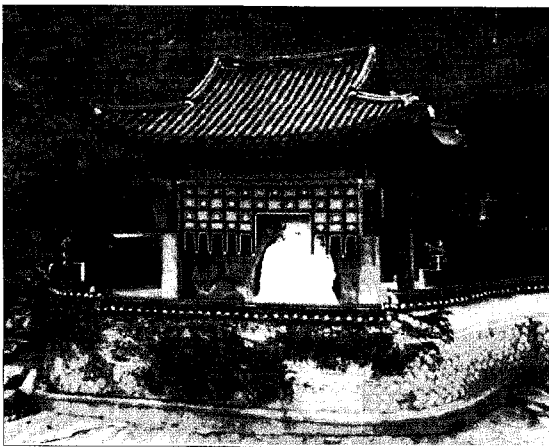
상류엔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어 차도를 타야 한다. 상명대 삼거리에서 오른쪽 언덕을 보면 기와집이 한 채 보인다. 소설가 이광수의 고택이다. 자전거를 끌고 오르자면 제법 땀이 날 정도로 가파르다. 담이 높아 밖에선 안이 잘 보이지 않는다.

주인의 허락을 얻어 안에 들어가면 새 단장한 한옥집을 볼 수 있다. 이곳에 이사한 가족이 고택 보존을 원하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한옥을 고스란히 보존한 것. 집 안에 이광수가 1934년 봄에 옮겨 심은 나무가 지금껏 자라고 있다.

삼거리에서 북악산 방면 쪽 길엔 서예가로 유명한 손재형 (1903-1981) 집이었던 '석파랑'을 비롯, 대원군 별장 부속건물 (석파랑 내, 서울시 유형문화재 23호)이 있다. 대원군 별장인 '석파정'은 여기서 자하문 방향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볼 수 있지만 개인 소유인 탓에 일반인이 드나들 수는 없다.

삼거리에서 나와 홍제천을 따라 조금만 내려가면 큰 성문을 보게 된다. 탕춘대성의 관문인 홍지문(서울시 유형문화재 33호)이다. 홍지문 앞뒤론 산책길이 만들어져 있어 자전거 타기도 좋고, 천천히 걷기도 좋다.

여기서 차도를 따라 자전거를 조금만 더 달리면 오른쪽엔 하얀 돌부처가 나타난다. 항상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잘 보인다. 옥천암 경내 돌에 새긴 부처로 보도각 백불(普度閣白佛)이라 부른다. 서울시 유형문화재 17호다. 절이 작기 때문에 다리 입구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한번 둘러보는 게 좋다.



〈그림 3〉 보도각백불 (출처 <http://blog.naver.com/kmmta>)

여기서 하천 옆길을 따라서 달리면 포방터시장이 나온다. 예전에 포를 쏘는 연습장이 있었다고 해서 이 동네를 '포방골'이라 불렀고, 포방터시장은 거기서 유래했다. 시장을 살짝 구경한 뒤 다시 하천길로 복귀. 차도를 따라서 600~700m 정도 내려가면 유진상가와 인왕시장이 나온다.

서울 시내에 있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시골장터처럼 살아 있는 닭이나 오리 등을 내놓고 파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시장이다. 시장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자형이 아니라 광장형이다. 넓은

실내 공터에 농산물, 수산물, 먹을거리장터가 어울려 있다. 그 모습이 색다른 한 번 구경하시길.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 촬영지였던 곳이기도 하다.

유진상가 앞 사거리에서 그랜드힐튼호텔 건너편 제3홍제교를 지나면 자전거 진입로가 보인다. 진입로 입구엔 공기주입기 계가 있으니 바퀴에 공기가 '뽕뽕'한지 살펴보고 부족하다 싶으면 여기서 넣고 가길 바란다.



〈그림 4〉 홍제천 자전거 도로



〈그림 5〉 홍제천 (출처 <http://blog.naver.com/choiky4>)

여기서부터 본격 자전거 전용길이다. 한강합류지점까지 걸리는 시간은 25분에서 30분 정도. 물론 속도를 내면 더 줄일 수 있겠지만, 사람과 함께 다니는 길이니 과속은 금물이다. 홍제천길은 최근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기 위한 공사가 한창이다. 지금 홍제천엘 가면 앞으로 물이 가득 차면 보기 힘든 모습들을 볼 수 있다.

홍제천길은 어느 하천보다 시원한 곳이다. 1999년 완공된 내부순환도로가 홍제천 하류 6.9km 구간 위를 지나 항상 그늘이 져있기 때문이다. 비가 올 때는 적당히 비를 피하기도 쉽다.

홍제천 자전거 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갑자기 왼쪽에 큰 절벽을 만나게 된다. 여름에 이곳을 지나면 무척 시원하다. 바로 안산이다. 해발 296m의 작은 산이다. 산을 타길 좋아한다면 근처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등산을 시작해도 된다.



〈그림 6〉 홍제천 안산

여기서 홍연교, 홍연2교를 지나면 홍남교엔 자전거무료대 여소가 있다. 신분증만 제출하면 자전거를 빌릴 수 있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끔씩 핑크를 내거나 고장 난 뒤 말없이 가는 불량(?) 이용객도 있다고 한다.

연교 위쪽에 항상 뽕튀기 아저씨가 쌀과자를 팔고 있다. 겨울철엔 모습이 보이지 않더니 봄을 맞아 최근 다시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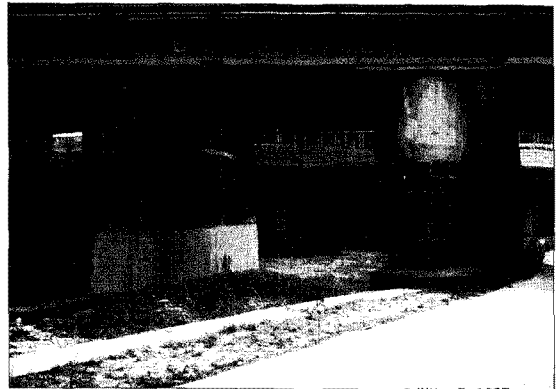


〈그림 7〉 연교 뽕튀기 아저씨

여기서 조금 더 달리면 사천교가 보인다. 사천교 부근에 홍제천 양쪽을 오갈 수 있는 얇은 길이 있는데, 비가 오면 물에 잠기고, 평상시엔 드러나 있다. 일종의 잠수교인 셈이다.

바다에 시멘트이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엔 이 근처는 아이들 놀이터가 된다. 웬만큼 비가 오더라도 물살이 그다지 세지 않고 얇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건널 만하다.

사천교와 연남교 사이엔 경의 1, 2철교가 지나간다. 세월의 때가 잔뜩 낀 돌다리를 보면서 문득 6.25 전쟁 때 피난열차가 다니던 철길을 떠올리곤 했다. 그만큼 오래돼 보이는 다리다. 서울역에서 출발한 통근열차(옛 비둘기호)는 이 길을 지나 일산, 파주, 문산, 임진강을 지난 뒤 도라산역까지 달린다. 근처 수색역은 영화 〈봄날은 간다〉 촬영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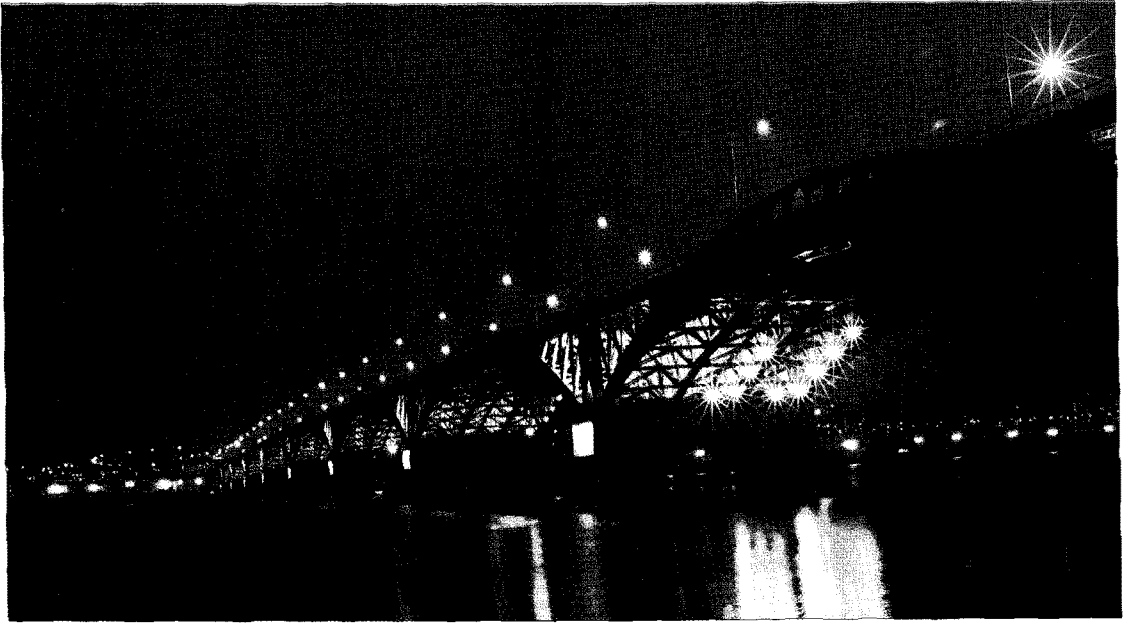


〈그림 8〉 경의철교

잠시 옆길로 새고 싶다면 근처 모래내시장이 괜찮다. 1968년 만들어졌으니 올해로 42년 된 시장이다. 모래내시장은 1973년에 만들어진 서중시장과 붙어 있다. 두 개 시장을 합쳐 보통 모래내시장이라고 부른다. 꽤 큰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발품 팔면서 구경할 만하다.

여기서 간단히 요기를 한 뒤 다시 사천교로 되돌아온다. 이제 한강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천교 공터엔 여름이 되면 야시장이 열린다. 길 양쪽에서 음식냄새를 피워 지나는 이들의 코를 자극한다. 야시장이 열리면 거의 어김없이 폼바 공연이 펼쳐진다.

봄엔 눈과 귀를 자극할 만한 것이 없으니 그냥 코로 풀냄새를 맡고, 귀로 바람소리를 들으며 달리면 된다. 조금만 달리



면 불광천 합류지점이 나온다. 합류지점에서 불광천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면 보이는 큰 건물이 월드컵경기장이다. 월드컵경기장 옆엔 봄철 나들이 장소로 좋은 월드컵공원이 있다.

불광천 합류지점에서 남쪽 방향으로 볼 때 보이는 곳이 한강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홍제천 길이는 13.92km. 한강까지 가는데 힘들었다고 한다면 운동 부족이다. 돌아갈 길을 생각하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편도로만 생각한다면 가쁜 길이다.

홍제천과 한강이 만난 지점에서 보이는 다리가 성산대교다. 이 짧은 다리를 봤으면 이제 홍제천 여행은 끝이다. 성산대교 옆엔 일광욕장이 있으니 여름엔 이곳에 누워 휴식을 취해도 되고, 근처 풀밭에서 홍제천 여행을 마무리해도 된다. 아, 또 하나, 근처에 수영장이 있으니 수영을 즐기고 싶은 사람은 미리 수영복을 준비해 올 것. 🌐



(그림 9) 홍제천 하류

글·사진 김대홍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3 때까지 <소년중앙>을 구독하였고 지금 까지도 책장 두 개를 만화책으로 모두 채워놓고 수시로 꺼내보는 만화광. 자전거 역시 네다섯 살 때 세발자전거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놓치지 않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서울에서 강진, 거창, 김화도를 다녀왔고, 남해, 통영, 경주 등 남쪽 일대를 누비기도 했다. 현재 <오마이뉴스>에서 편집기획팀 기자로 일하고 있다.

편집자 주 : 이 글은 이미 여행스케치라는 여행전문잡지에 수록되었던 바 있는 글이나 하천에 대한 소개가 인상적이어서 잡지사에 양해를 구한 후 하천에 대한 소개 글을 연차적으로 수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